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8호 [루게 제24771호] 주제 103 (2014)년 12월 24일 (수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은 최후승리의 만년초석이다

주체의 선군태양, 민족의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3돐을 맞이하고있다. 지금 우리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야전복차임으로 불면불휴의 선군혁명업적을 수놓아오신 백두의 친출명장을 우러러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주제 80(1991)년 12월 24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일찍부터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주체적건설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철세의 위인에 대한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의 분출이었다. 이때로부터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필승불패성과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이 더욱더 힘있게 떨쳐지게 되었다. 20세기 90년대와 21세기의 첫 10년대에 이룩된 모든 정치군사적기적도,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주제 100년대전군의 힘찬 활력도 역사의 이남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은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의 만년초석이다.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아버지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천만군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면불휴의 선군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천체적인 군사적외와 무비의 담력, 비범한 명군술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위업을 승리로 이끌어오신 탁월한 정치군사사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시다. 인류력사에는 우리 장군님께서 같이 총포성이 울부짖는 혁명의 전구에서 탄생하시고 한평생 총대와 함께 반제대결전의 폭풍우를 앞장에서 헤치시며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몸을 초발처럼 쟁그리 불태워오신 위대한 혁명가, 철세의 애국자는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시고 우리 혁명을 명도하여오신 나날은 조국과 민족앞에 최악의 시련이 겹쌓였던 시기였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책동으로 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이 생사기묘에 놓였던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것이 얼마나 크나큰 행운이었는가를 실감없이 절감하고있다. 수행의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선군혁명의 불을기울 더 높이 추켜드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주적인, 자주적군위병으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칠 수 있었으며 승리의 전풍이 곳곳이 이어질수 있었다.

주제 100년사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로 결속되고 우리 조국이 사회주의의 불멸의 보루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게 된것은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선군의 기치높이 시대와 혁명,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역사에 전무후무한것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새로운 주제 100년대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고있다. 오늘날의 총진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에 토대하여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승리의 전진군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에는 반제반미 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구현해나가야 할 모든 사상리론적, 전략전술적지침들과 풍부한 투쟁 경험이 깃들어있으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존엄과 번영을 위한 정치군사적, 경제문화적토대가 담겨져있다. 역사에 료례없는 가장 존엄한 시련속에서 자주적운동개척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한 이 고귀한 업적이 있기에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며 미래는 낙관적이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은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정신적 무기이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업적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선군사상을 마련하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운동의 역사적교훈과 격변하는 시대의 요구를 통찰하시고 아버지수령님의 총대종시, 군사중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으로 정립체계화하신것은 인류사상사에 특기할 역사적사건이었다. 선군혁명사상에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견결한 계속혁명의지와 투철한 반제자주적립장, 철의 신념이 맥박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완성된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철학과 군대



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의 원리, 군사선행과 선군후로의 원칙은 오늘도 꿰뚫고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불변의 지침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선군사상은 혁명 승리의 첩리를 새겨주는 삶과 투쟁의 교과서이며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백배해주는 정신적 기둥이다. 선군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지난 3년간 우리 혁명의 주체의 향로는 후호의 혼들림 없었으며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위대한 선군혁명사상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혁명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조선혁명가들의 영웅적전군은 세계를 끝없이 경탄시키고있다.

백두의 행군길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진로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준엄한 혁명의 천만리를 헤쳐오는 로정에서 선군사상의 절대적전선성을 뼈에 새긴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선군의 길에 제2의 길이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 21세기를 대표하고 향도하는 위대한 선군혁명사상을 귀중한 정신적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김정일 동지의 업적은 최후승리의 역사적전군과 더불어 세세대대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은 인민군대를 혁명의 지지점으로 하여 승리의 전풍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이다.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전통은 선군에 그 역사적뿌리를 두고있다. 승리는 대를 이어, 이런 혁명 신념, 혁명배짱, 혁명투지를 지니시고 그 어느 위인전의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불면불휴의 선군혁명업적의 길을 이어오신분이 위대한 김정일 동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반세기전 선군혁명위업제승의 새 출발을 선언하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걸으신 군영도의 로정은 157만 4,980여리에 달하며 찾으신 단위수는 연 1만 2,790여개를 헤아린다. 최전연의 가파로운 명길과 풍랑

사나운 배길, 부방의 사나운 눈보라길도 최후승리의 진격로로 여기시며 강철의 신념과 의지로 모진 고난과 시련을 맞받아 뚫고나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바로 이 길에서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이 자라났고 현대적무장장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는 백두산 병기창이 마련되었으며 우리 조국이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불멸의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오르게 되었다.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서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가 강했기에 피눈물의 1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나날 우리의 사상과 위업, 우리 제도는 끄떡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과 맞바꾼 강철한 전정역적력이 우리의 존엄과 평화를 온건히 지켜 주었고 우리 공화국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웠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오늘과 같이 우리가 세계정치 무대의 중심에 서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 하고있는 사변적인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오늘 인민군대를 핵심, 기둥으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방위력은 사회주의수호와 최후승리의 제일 보검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승리는 영원히 선군조선의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은 군민 대결전의 위력으로 조국번영의 찬란한 전성기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고무적원천이다.

군대와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2대력량이며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한 군민의 힘은 무한대이다. 혁명의 개척기에 마련된 군대와 인민의 단결의 전통과 위력은 위대한 김정일시대에 새로운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군민대결, 이것은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군인정신을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온

사회가 적극 따라배우도록 이끌어오신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군민일치가 억년 드물지 않을 우리 사회의 밑뿌리로, 세기적변혁과 기적창조의 원동력으로 되게 되었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최악의 역경도 군대와 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겨냈고 21세기 강성국가건설의 활로도 군민대결의 위력으로 열 어놓았다.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는 강계정신과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와 같은 새로운 혁명적대교조의 불씨를 안아왔으며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는 최첨단돌파의 장엄한 역사를 펼쳐놓았다. 지난 3년간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 차넘친 약동하는 비약의 기상과 도처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들은 군민대결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이다.

군민대결은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뜨거운 열과 정을 기울여 마련해주신 군민대결이 있기에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나라와 민족의 만년대계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혁명업적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지부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한평생 선군혁명의 길을 걸으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태양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천추만대에 빛내어나가야 한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역사는 선군으로 존엄 떨쳐온 영광찬란 로정이며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오늘도 매일도 끝까지 걸어나가야 할 영원한 승리의 길, 조국번영의 길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 투쟁과 건설사업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의 등대이고 천만군민의 마음의 기둥이며 승리의 상징인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교시를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결사판결 하여야 한다. 천년이고 만년이고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고결한 총정과 숭고한 도덕 의리심이 온 나라에 꼭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령도는 선군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오늘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광을 온 누리에 떨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한다고 간곡하게 당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지니고 원수님과 사상과 뜻, 생사운명을 끝까지 함께 해나가는 참된 선군 혁명동지, 진정한 전우가 되어야 한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신념의 구호, 실천의 구호이다. 누구나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심장마다에 쏘아박고 오직 당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견결한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원칙, 계급 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와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도 묵과하지 말고 비타협적 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선군정치,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주력군이며 반제군사 전진의 제일기둥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오직 당과 수령만을 따르며 결사옹위할 하나의 사상, 하나의 각오로 심장을 불 태워야 한다.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군체를 철저히 세우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백두산혁명강군의 혁명적본체를 견결히 고수 해나가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혼편을 소홀히 하면 총대에 녹이 쏘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칠성판에 오르게 된다는 혁명의 철리를 뼈속깊이 새기고 백두의 혼편열풍을 세차게 수행해나가야 한다. 장수의 성새, 불침의 전함, 하늘의 제일결사대로 만들어야 한다. 전군이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 를 힘있게 다그치며 강성국가건설의 기수, 돌격대로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지금 미래와 그 추종세력들은 천만부당한 《인권 결의》를 조작해내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의 도발선에 불을 달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로동적위업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미래와 그 추종세력들의 전쟁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한순에는 총을, 다른 한순에는 마차와 낫과 붓을 틀어쥐고 자기도, 자기군, 자기 향토를 믿음직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의 한전초에서 피와 살을 나누며 애걸고 싸워온 군민일치의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을 끝까지 이어나가야 한다.

창양된 애국의 힘, 불굴의 정신력으로 조선속도 향도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조국의 통성번영을 위하여 한생을 불같이 사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적,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이다. 김정일애국주의가 천만군민에게 전할줄 모르는 용기를 안겨주고 활력을 부어주고있기에 우리에게는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 정책옹위전을 맹렬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거이 세게를 디디고 올라서고야말겠다는 자신 만만한 배짱을 지니고 더 높은 목표와 이상실현을 위하여 최대속도로 내달려야 한다. 인민군대인들의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파강한 공격정신과 불굴의 개척정신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군민협동작전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의 산과 들, 바다를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로 전면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과 강위력한 일심단결이 있기에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선군혁명의 한길로 역세게 쏘여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12월 24일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황병서동지, 현영철동지, 리영길동지, 김원홍동지, 김정각동지, 서홍찬동지, 박영식동지, 렬철성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주체의 선군태양,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를 절절히 그리는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치고있는 시기에 우리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3돐을 맞이하였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백옥같은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대하처럼 흐르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향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찍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참가

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리용하신 사적 열차, 사적승용차와 울음흙,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과 전동차, 배보존실을 돌아보시였다.

참가자들은 주체적군건설위업수행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1991년 12월 24일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우리 조국의 운명과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준 민족의 대경사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로정은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인민군대가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오,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되여온 영광스러운 행로이며 천만군민이 력사에 류레없는 폭풍우를 뚫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온 빛나는 년대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무비의 담력으로 우리 혁명무력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놓

으시였으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짐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오직 당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 총구를 내대고 곧바로 나아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최후대로 역세게 자랑날수 있었다.

3 번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2 면에서 계속

총대로 개척된 주제혁명업무를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명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중의 가장 고귀한 업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 하여 이 땅 위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혁명

역사가 줄기차게 흐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대를 이어 누리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강성변영의 기상을 온 누리에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백두산 총대의 위력으로 선군조선의 세 력

사를 창조해나가고계신다. 우리 인민군대를 천하무적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세기적전변의 새 역사를 창조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 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평군업적을 생명선으로 삼고 군 건설과 군사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며 전군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조국과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백두산혁명장군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으로 빛나고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강대성의 상징이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승리의 기치인 최고사령관기를 필멸 휘날리며 주제혁명, 선군혁명의 길에서 앞으로도 영원히 한치의 양보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함경북도의 여러 단위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청진시에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충성을 바친 함경북도의 여러 단위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실 불타는 일일안고 도금강관리국, 도관광관리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을 물심양면으로 힘있게 지원하였다. 무역은행 함경북도지점, 청진시 포항구역가내축산관리위원회, 청진고등예술편문학교, 모란지도국 산하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돌격대원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안겨주고 화신식경제선동도 활발히 벌리였다. 철출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며 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 부원 서희복, 청진광산금속대학

교원 김유광, 청진시기계공장 로동자 박철은 아간지원들 격대에 망라되어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였으며 지원 사업에서도 모범을 보였었다. 함경북도혁명사적관 로동자 강봉숙과 청진포항상점 지배인 리희경, 청진시 포항구역연료사업소 로동자 김혜련, 도인민위원회 유원사업소 로동자 최경일, 청진시인민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김철, 중앙은행 함경북도은행 부원 전현희, 청진시대흥관리부 로동자 리군, 풍라도지도국 산하단위 로동자 김상준도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도록 높이 모셔갈 순결한 마음으로 온갖 지성을 다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감사를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을 지닌 여러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당의 선군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혁명적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3쪽에 즈음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장영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무관이 23일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륵군대장 현영철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인민군의 장장 수십성상의 력사우에 력히 빛나는것은 바로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를 생명으로 하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맨 앞장에서 결사관철하는 선봉대,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전위대로 자라났습니다.》** 주체 53(1964)년 6월 23일,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지 며칠이 지난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일군을 만나시고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과 조선로동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전위대가 되어야 한다》** 라는 력사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위대한 수령님과 조선로동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전위대로 만들려는것은 나의 드림없는

결심이며 의지이다! 력사의 그 의지를 안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장 수십성상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새기시였다. 주체 65(1976)년 정월 초하루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복속 비쳐 싸우자!》** 라는 불멸의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구호는 제시되자마자 인민군인민들의 심금을 세차게 격동시키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백두산총대를 역세게 틀어쥐고 당과 수령을 맨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는 백두산혁명장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오늘의 7련대가 되자!》** 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인민군대에서 오 중훈 7련대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오중훈 7련대청호쟁취운동의 거센 불길속에서 전군이 수령결사옹위의 총 폭탄대로, 결사관철의 기수로, 어떤 적도 단애에 쳐부수실수 있는 무적불승의 백두산혁명장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어 그 위용을 높이 떨치였다. 력사적화풍들이 편편히 어려온다. 언제인가 조선인민군의 어느 한 해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대의 구조물론보존 교양실도 찾으시였다. 그곳에는 인민군인들이 목숨바쳐 구원한 혁명적 구조물론들과 함께 그들의 투쟁자료도 전시되어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7명 영웅 전사들의 사진을 보고 또 보시며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을 지닌 그들이였기에 삼단같은 불길속에서 숨없이 뛰어들어 목숨으로 구호나 무를 구원해낼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인들을 영광의 언덕에 높이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속에 넘쳐난 경정의 열기는 얼마나 뜨거웠는가. 그토록 장한 전사들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우시였습디다! 그렇다.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로 자라 이 땅에 철벽의 성세를 이루었다. 망망대해에서 조난당한 위급한 상태에서도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물기 한점 스며들지 않게 보존하고 장군님을 그리며 떠나간 군인들, 단신으로 적구에서 용감히 싸우고 기어 이 승리가 되어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긴 일당백용사들의 모습은 참으로 미덥고 장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오늘의 오중훈 7련대!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 한평생 크나큰 품을 들이시여 강화발전시키신 백두산혁명장군, 조선인민군의 참모습이다. 본사기자 김 인 선

김보자 에프엠 90.5방송이 5일 《항일의 여성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방송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12월 24일은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탄생하신 97돐이 되는 날이다. 녀사께서는 조선인민이 일본의 군사적강점하에서 수난을 겪던 시기 함경북도 회령의 가난한 농가에서

《 항일의 여성영웅 》 전설들이 무수히 퍼져 나갔다. 항일투사들이 밀림속의 나무들에 새긴 구호들은 《2천만 민족아 백두산의 장수 그이는 김일성 김정숙 백두광명성 만세 만만세》, 《백두산 항일녀장수 김정숙장군은 조선이 낳은 불세출의 녀걸이다》, 《백두산녀장군 신출귀몰 천지 주름 잡으며 왜놈 죽인다》 등의 내용들이 들어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선군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여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

천만의 심장을 쫓게 하는 선군령도업적교양

천 년이 고 만년이고 위대한 장군님을 추대의 선군령도업적으로,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천만민민의 고결한 총성과 승고한 도덕의리까지 온 나라 강산에 차입되는 12월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밑에 강력한 총대를 의지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최고리의를 수호하고 조국의 내 나라, 사회주의 내 조국을 불멸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여주시었다.》

각각 당 조직들에서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선군의 한길로 여세를 걸어갈 천만민민의 사상감정이 승화되는 데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해 주체적 군건설위업수행에 영연불멸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장군님의 선군혁명만민리을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에 더욱 힘을 넣고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우리 당의 선군사상을 본보기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선군사상 교양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군사상 교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문화회관과 현정당에 선군정치와 관련한 그림과 원호, 축자식 교양자료들을 잘 갖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양 사업을 통해 선군사상을 심숙하게 널리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중요계기를 리용하여 도와 시, 군당조직

들에서 선군사상의 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답식학습강연도 조직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애정을 나타내며, 장군님의 위대한 공적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장군님의 위대한 공적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장군님의 위대한 공적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장군님의 위대한 공적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장군님의 위대한 공적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장군님의 위대한 공적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의 당조직들에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잘 꾸러놓고 집결지들을 내세워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교양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민단결의 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것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거대한 공적이다.

평양시, 남포시인의 당조직들에서는 선군령도업적교양을 통해 우리 당의 선군정치적 위대성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선원들과 학습강사, 강연강사들을 발동하여 진행하는 해설강연과 연구발표모임, 강연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사상교양사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해 구체화시키고 선군정치를 위력한 사회주의정치방식으로 확립해나가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신 력사적사건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체득시키었다.

성진계강원합기기업소, 남흥정년화합기업소, 락원기계합기기업소, 김정숙중앙방직기업소, 2.8직통청년단방,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단위

들은 기업소들에서 제대군인들과의 사업을 중시하는 기풍을 안아왔으며 그것은 종업원들을 혁명적군정신의 체현자들로 키우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었다.

제대병사의 위치는 언제나 제1선참호 당위원회 사업에서 장초급당서 김성남동무가 살림집문제해결에 필요한 벽돌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것을 발의해 나간 제대군인의 제기를 지지해준고 도와 시, 군당조직들에서 제대군인들을 위한 사업을 중시하는 기풍을 안아왔으며 그것은 종업원들을 혁명적군정신의 체현자들로 키우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었다.

제대병사의 위치는 언제나 제1선참호 당위원회 사업에서 장초급당서 김성남동무가 살림집문제해결에 필요한 벽돌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것을 발의해 나간 제대군인의 제기를 지지해준고 도와 시, 군당조직들에서 제대군인들을 위한 사업을 중시하는 기풍을 안아왔으며 그것은 종업원들을 혁명적군정신의 체현자들로 키우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는 명도의 계승을 빛나게 해갈수있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으신 업적중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는것을 다시금 새겨안고 되었다.

강원도당위원회는 도안의 청소년학생들이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인 철령을 마음속에 안고 살도록 하기 위해 철령에로의 답사행군을 정상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또한 12월 24일을 맞아 우리 당의 선군정치적 위대성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선원들과 학습강사, 강연강사들을 발동하여 진행하는 해설강연과 연구발표모임, 강연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사상교양사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해 구체화시키고 선군정치를 위력한 사회주의정치방식으로 확립해나가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신 력사적사건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체득시키었다.

성진계강원합기기업소, 남흥정년화합기업소, 락원기계합기기업소, 김정숙중앙방직기업소, 2.8직통청년단방,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단위

구성담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구성담공장의 매주 월요일은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들이 쓴 전투기록장의 내용을 발표하곤 하는 날이다.

이날 아침이면 종업원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두차례나 찾아주시는 내용의 발표하곤 하는 날이다.

이날 아침이면 종업원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두차례나 찾아주시는 내용의 발표하곤 하는 날이다.

지금까지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의 사상교양사업을 많이 해왔다. 물론 필요도 있었다. 하지만 당의 의도와 격조적인 현실은 보다 실용성이 높은 정치사업방법을 적극 활용할것을 요구하고있지 않았다.

위대한 명도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교양사업은 하나를 하여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도록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초급당위원회는 부비서 김영식, 지배인 백영복, 사상사업홍보포동무들과 함께 사상사업의 실용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그 과정에 모든 종업원들이 이미전부터 쓰고있는 전투기록장의 내용을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발표하는 원수님 따라 선군의 한길로 여세를 걸어갈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는 경축공연도 활발히 벌여지고있다.

각각 당조직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군령도업적교양을 통해 우리 당의 선군정치적 위대성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선원들과 학습강사, 강연강사들을 발동하여 진행하는 해설강연과 연구발표모임, 강연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사상교양사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해 구체화시키고 선군정치를 위력한 사회주의정치방식으로 확립해나가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신 력사적사건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체득시키었다.

은 말이 아니라 사업실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것을 종업원들속에 깊이 해설해주어 그들이 혁명업수행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도록 하였으며 하루하루의 실적을 전투기록장에 적어넣도록 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심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빛내기 위해 높은 실적을 올리면서 전투기록장을 정성껏 써내려가는 청년작업원들을 격려했다. 라경수, 양영대의 강설화, 고기공작업반의 김광숙, 조금란동무들의 모범을 일반화하는 사업도 적극 따라세웠다.

은 공장에 전투기록장운영열풍이 일어났다.

전투기록장은 량심의 거울이 되어 종업원들의 정성력을 담고있어 폭발시키게 하였다.

생산생활화의 토대가 더욱 강화되었고 공장의 면모가 일신되도록 1만 3000여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수림화, 원림화에서 큰결실을 내리게 되었다.

전투기록장운영, 바로 이 하나를 통해서도 이곳 초급당위원회는 참으로 많은것을 얻게 되었다.

정치사업은 하나를 해도 참신하게 해야 실적을 거둘수 있다는것을 이곳 초급당위원회사업은 다시금 확충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지중석

제대병사의 위치는 언제나 제1선참호 당위원회 사업에서

당을 받아들인 지난날의 제대군인들의 영웅적유언에 대한 해설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게 한다.

당위원회는 작전 때 자주 조직되는 또 하나의 특색있는 사업이 있다. 건군절에 천리마구역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제대군인들의 열렬행진을 진행하는것이다.

군복은 벗었지만 여전히 병사시절처럼 살려준 영웅적유언이 그대로 유효하게 하는 열렬행진은 제대군인들을 분발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고있다.

계기와 공정을 잘 리용하여 특색있게 진행되는 교양사업이 심화되는 속에 제대군인들의 정신력은 비상히 양양되었고 감동깊은 소행들도 발표되었다.

삼단같은 불길이라 불리는 속에서도 숨이 뛰어들어 백두산전설위인들의 초상화를 안건하게 모셔내는 생활필수품공급 김성민동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위험에 처한 혁명동지들을 구원하고 희생된 로동자 강용남동무의 영웅적소행들은 당위원회가 진행한 사상교양사업의 실효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대군인들의 선분적협력을 높이고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인발강관직 초급당위원회가 제대군인들과의 사업을 잘하고있는 자료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직

장초급당서 김성남동무가 살림집문제해결에 필요한 벽돌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것을 발의해 나간 제대군인의 제기를 지지해준고 도와 시, 군당조직들에서 제대군인들을 위한 사업을 중시하는 기풍을 안아왔으며 그것은 종업원들을 혁명적군정신의 체현자들로 키우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었다.

제대병사의 위치는 언제나 제1선참호 당위원회 사업에서 장초급당서 김성남동무가 살림집문제해결에 필요한 벽돌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것을 발의해 나간 제대군인의 제기를 지지해준고 도와 시, 군당조직들에서 제대군인들을 위한 사업을 중시하는 기풍을 안아왔으며 그것은 종업원들을 혁명적군정신의 체현자들로 키우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었다.

들을 기업소들에서 제대군인들과의 사업을 중시하는 기풍을 안아왔으며 그것은 종업원들을 혁명적군정신의 체현자들로 키우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었다.

제대병사의 위치는 언제나 제1선참호 당위원회 사업에서 장초급당서 김성남동무가 살림집문제해결에 필요한 벽돌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것을 발의해 나간 제대군인의 제기를 지지해준고 도와 시, 군당조직들에서 제대군인들을 위한 사업을 중시하는 기풍을 안아왔으며 그것은 종업원들을 혁명적군정신의 체현자들로 키우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에 충실하신 선군혁명령도께서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력사의 준엄한 시험과 풍파를 헤치며 우리 혁명을 영광스런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줍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쳐오신 선군정치의 길을 더듬어 매마다 나의 가슴속에 있는 하나의 영이 우뚝이 솟아오르곤 한다.

우리 장군님의 선군의 사상과 의지, 헌신의 대명사로,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으로 빛나는 철령이 다. 굵이 굵이 아흔아홉굽이를 누를 때 나는 지금처럼 철령을 넘어 최전

나라 군대와 인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언젠가 우리 장군님께서 하신 교시가 가슴에 젖어든다. ... 나는 철령을 넘어 넘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넘고 눈을 맞으면서도 넘었으며 밤에도 넘

고 새벽에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철령을 잊을수 없습니다. 지금도 철령의 험한 명길들과 높고낮은 산봉우리들이 눈에 선합니다. ... 나는 지금처럼 철령을 넘어 최전

수필: 기념비

이름들 철령은 우리 장군님과 땀수 없는 연인을 맺은 선군혁명령도의 증거자이다.

우리 장군님의 선군의지와 애국신심으로 빛나는 철령이 있어 내 조국은 고난의 바다에서 솟구쳐올라 강성국가건설이라는 거대한 위업을 펼칠수 있었고 인민의 리상이 꽃피어가는 행복의 무릉도원을 안아올수 있었다.

정령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지어 길가의 조약돌 하나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헌신의 제위가 뜨겁게 이르고있고 아련차의 동음이 새겨져있기에 언제나 잠들지 못하는 철령이다.

그러니 철령을 아저 철한 명이라고만 하라.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세세대대 전해갈 기념비라고 나는 세상에 소리가 높고있다.

세상에는 제너들의 의미를 전하는 각양각색의 기념비들이 많지만 이런 기념비는 력사에도 없었고 세계에도 없다.

그렇다. 백두령정의 역적의 신념과 의지, 선군의 세계를 고이 간직하고 끝없이 전하는 철령이야말로 천추만대에 영원히 빛날 선군혁명기념비 아니겠는가.

허 일 무

본사기자 지중석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높은 생산실적으로 받들어 나가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종업원들의 결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저한 관심을 철회하지 않을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종업원들의 결기모임이 23일에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초급당서 홍성희의 보고에 이어 지배인 차철현, 직장장 리영희, 로동자 김정옥이 토론하였다.

보고자하고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뜨겁게 애정을 쏟으신 생애를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공장에서 풍유하는 물론 여러가지 어린이식료품을 대량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풍유를 비롯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공급할 맛있게 영양가높은 식료품 생산에 그토록 마음쓰며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신 것에 대한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은 생산실적으로 받들어 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에 애정을 쏟으신데 대한 열렬한 애정을 나타내며, 장군님의 위대한 공적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장군님의 위대한 공적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장군님의 위대한 공적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장군님의 위대한 공적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장군님의 위대한 공적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로튼히 무장할수 있게 과학기술적식비공급을 손색없이 꾸리며 로동안전, 위생안전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나라 식료품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식료품공장의 모범을 따라배워 당창건 70돐까지 공장의 현대화를 완벽하게 실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하고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관심을 높이는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어머니당의 숭고한 사랑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닿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려신 편지가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는 지난 수년전 나라의 수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온 굴지의 대규모수산단위이다.

지난 시기과 달리 400hp부터 1000hp의 큰 고기배를 도입하여 생산량을 늘려주고 있다. 또한 고기배를 늘려주고 있다. 또한 고기배를 늘려주고 있다.

지난 11월까지 기업소적으로 기록된 어획량은 한해의 같은 시기보다 2.7배로 높다. 고기배들의 출어일수도 늘어나고 있다. 비결은 무엇인가.

얼마전 이곳을 찾았던 우리는 기업소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놓고 수산부문에 일꾼들이 대오의 기수로서의 높은 책임감과 비상한 공격정신을 발휘할 때 당면한 물고기잡이에서 실적을 낼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느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에서는 최고사령관명령을 결사관철하여 물고기대중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기배와 어구들을 현대화하고 과학적방법으로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포구기대에 전선의 배고물러가 높이 올리게 하며 바다기양식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결코 물고기가 없는것이 아니었다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일꾼들의 사업에서

일꾼들이 찾은 교훈이었다. 기업소일꾼들은 어항에 따라 배들을 출항케한 종전의 편법을 따르고 큰 배들의 출어일수를 부쩍 늘여 어항의 수질을 높이지는데도 의견을 합치였다.

간혹 이런 경우 대대로 참새를 쏘아잡는 격이 될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소일꾼들의 결심은 단호했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물고기잡이의 과학화가 실현되어 어항물고기 기동성이 명백히 진행되는 조건에서 어로방법만 개선한다면 능히 큰 배들의 출어일수를 늘이고 조국의 바다우에 만민을 위한 배를 수 있다는것이 일꾼들의 결심이었다.

이렇게 되어 연합기업소적으로 세워진 대책안은 능력이 큰 배들의 수리정비와 주요항목으로 오르게 되었다.

기업소적으로 높고빠른 무인적으로 수리정비해야 할 400hp짜리 고기배는 10척이 넘었다. 모든것이 부족한 조건에서 내세운 배수리작업은 쉽지 않은 목표였지만 일꾼들은 혁명적으로 달려들어 완강하게 내밀었다.

여기서 일꾼들이 잘한 점이 있었다.

일꾼들은 배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배수리작업이 한창일 때 모든 전투단위에서 분위주의를 없애고 고기배들을 긴급히 출항하도록 하였다. 한마디로 고기배들간에 필요이상 넘겨주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수산사업소들이

본사기자 지중석

우리 나라에 로씨야련방 정부에서 식량 지원

【평양 1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에 로씨야련방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식량 5만t의 납입이 끝났다.

기중식이 23일 남포항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김지서 수매장 정성 부장, 판계부내 일꾼들과 이리 씨기보부 조로씨야련방 립시대리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

로씨야련방 정부의 식량지원은 두 나라사회의 전통적인 친선동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지중석

식민지전쟁하수인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불소나기를 피할수 없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피뢰침전세력의

《인권》소동은 전쟁도발의 전주곡

사실을 놓고볼 때 이번 사태를 스쳐지날수 없다. 미국과 피뢰침전세력이 감행한 특수부대훈련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노리고 북침전쟁 각본을 실행하기 위한 예비훈련으로서 대단히 위험천만하다. 미국과 피뢰침전세력은 여러 식재도 그 무슨 《북극변사태》에 대해 운운하며 그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침략적인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여왔다. 올해만 놓고보더라도 호전광들은 2월부터 《북극변사태》에 대비한 《핵시설장악》과 《평양점령》에 대해 내놓고 떠들어대면서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침략하기 위한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였으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을 감행하였다. 호전광들은 지난 4월에 있는 《핵시설장악》 합동군사연습을 벌였으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을 감행하였다.

리명박역도의 전선이후 그 누구도 비한 《군사적우세》를 제창하며 최선공격무기들과 전쟁장비의 구입, 개발을 본격화한 미국의 당혹에 의해 《국방예산》은 급격히 증가되었다. 피뢰침들은 그 엄청난 돈을 북침을 위한 무력증강에 쏟아부었다. 《천안》 호침물조사선과 연평도사건이 일어났 후 호침로 2015년 《국방예산》이 37조 456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호전광들은 《독자적인 방위력》의 간판밑에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사일세계공격체제인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 새로운 무기 도입과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동시에 무력주권을 세계공격력으로 더욱 완비하여 기어이 새 정권을 도발하려는 중요한 기도의 뚜렷한 발로이다.

하지만 남조선에 기어들어 북침전쟁연습에 돌입한 미군특수부대가 상대측의 내부교란과 전략목표물타격 등을 전문으로 하고있는 부대로서 지난 시기 미국의 미수가 별천 많은 나라들에서 암살과 유괴타격, 파괴활동 등 침략의 주역을 놀이온

은 그 무슨 《전투형군대육성》과 《북핵 및 미사일위협대비》에 중점을 둔것이라고 하면서 미사일과 대형공격정확성, 각종 전술형성 등 공격작전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대량 구입할것이라고 광고하였다. 얼마전에도 피뢰침부는 《대북감시》와 선제공격작전을 위한 계획의 한 고리로 2015년말까지 400억원을 들여 해외에서 무인기를 사들이고 서해 5개 섬일대와 군사보안지역들에 배비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금 피뢰침부는 그 어느때보다 반공화국모략에 열을 올리면서 《북핵위협》과 《안보불안》에 대해 떠돌고있다. 이것은 《국방예산》을 늘어 더 많은 돈을 북침전쟁준비에 랑진하기 위한 출세이다.

이런에 피뢰침전세력은 호전성에 있어서 리명박때만 쫓겨먹고 있다. 지난해엔 하여도 피뢰침들은 《독자적인 방위력》, 《장사정교위협》을 요란히 광고하며 북침전쟁준비상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방예산》은 전체에 비해 4.2%나 더 증가되었다. 그것은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비롯한 선제공격전략실현을 위한것이었다. 피뢰침들은 5년간으로 작성되는 《국방중기계획예산》을 이전에 비해 대폭 늘였다. 지난해 피뢰침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예산》은 241조 5000억원에 달하였다. 그에 대해 피뢰침부대거리들

은 그 무슨 《전투형군대육성》과 《북핵 및 미사일위협대비》에 중점을 둔것이라고 하면서 미사일과 대형공격정확성, 각종 전술형성 등 공격작전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대량 구입할것이라고 광고하였다. 얼마전에도 피뢰침부는 《대북감시》와 선제공격작전을 위한 계획의 한 고리로 2015년말까지 400억원을 들여 해외에서 무인기를 사들이고 서해 5개 섬일대와 군사보안지역들에 배비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금 피뢰침부는 그 어느때보다 반공화국모략에 열을 올리면서 《북핵위협》과 《안보불안》에 대해 떠돌고있다. 이것은 《국방예산》을 늘어 더 많은 돈을 북침전쟁준비에 랑진하기 위한 출세이다.

이런에 피뢰침전세력은 호전성에 있어서 리명박때만 쫓겨먹고 있다. 지난해엔 하여도 피뢰침들은 《독자적인 방위력》, 《장사정교위협》을 요란히 광고하며 북침전쟁준비상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방예산》은 전체에 비해 4.2%나 더 증가되었다. 그것은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비롯한 선제공격전략실현을 위한것이었다. 피뢰침들은 5년간으로 작성되는 《국방중기계획예산》을 이전에 비해 대폭 늘였다. 지난해 피뢰침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예산》은 241조 5000억원에 달하였다. 그에 대해 피뢰침부대거리들

은 그 무슨 《전투형군대육성》과 《북핵 및 미사일위협대비》에 중점을 둔것이라고 하면서 미사일과 대형공격정확성, 각종 전술형성 등 공격작전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대량 구입할것이라고 광고하였다. 얼마전에도 피뢰침부는 《대북감시》와 선제공격작전을 위한 계획의 한 고리로 2015년말까지 400억원을 들여 해외에서 무인기를 사들이고 서해 5개 섬일대와 군사보안지역들에 배비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금 피뢰침부는 그 어느때보다 반공화국모략에 열을 올리면서 《북핵위협》과 《안보불안》에 대해 떠돌고있다. 이것은 《국방예산》을 늘어 더 많은 돈을 북침전쟁준비에 랑진하기 위한 출세이다.

이런에 피뢰침전세력은 호전성에 있어서 리명박때만 쫓겨먹고 있다. 지난해엔 하여도 피뢰침들은 《독자적인 방위력》, 《장사정교위협》을 요란히 광고하며 북침전쟁준비상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방예산》은 전체에 비해 4.2%나 더 증가되었다. 그것은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비롯한 선제공격전략실현을 위한것이었다. 피뢰침들은 5년간으로 작성되는 《국방중기계획예산》을 이전에 비해 대폭 늘였다. 지난해 피뢰침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예산》은 241조 5000억원에 달하였다. 그에 대해 피뢰침부대거리들

은 그 무슨 《전투형군대육성》과 《북핵 및 미사일위협대비》에 중점을 둔것이라고 하면서 미사일과 대형공격정확성, 각종 전술형성 등 공격작전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대량 구입할것이라고 광고하였다. 얼마전에도 피뢰침부는 《대북감시》와 선제공격작전을 위한 계획의 한 고리로 2015년말까지 400억원을 들여 해외에서 무인기를 사들이고 서해 5개 섬일대와 군사보안지역들에 배비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금 피뢰침부는 그 어느때보다 반공화국모략에 열을 올리면서 《북핵위협》과 《안보불안》에 대해 떠돌고있다. 이것은 《국방예산》을 늘어 더 많은 돈을 북침전쟁준비에 랑진하기 위한 출세이다.

자멸을 재촉하는 얼간망둥이의 객기

긴 옷자락은 다리를 감고 긴 혀는 목을 감는다는 말이 있다. 피뢰침동참모본부의 장 최윤희역도가 요즘 이 속담의 부인공처럼 여기저기 바람개비처럼 돌아다니며 주인공이 허바닥을 날들거리고있다. 얼마전 최윤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전선서부의 최진방초소, 피뢰침군 케이타기시 등에서 편이어나 나타나 그 누구의 《도발》시 《용정능력과 의지파시》나, 《압도》나 하는따위의 가스로는 나팔을 불어대며 호전적광기를 부리었다. 이날 이자가 《자유와 평화수호의 최진선》이, 《상징과도 같은 부대》나 하고 사병들을 잔뜩 추어주는 신파군을 벌인 곳은 지난해 우리 군인들에게 엄청난 군사적도발을 걸었던 피뢰침초소였다.

말할수 없고 계산할수도 없는것이 바로 우리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이다. 그런데도 최윤희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쫓겨들고 무모한 최진방초소에 마구 내몰았으니 그야말로 미혹하기 그지없다. 역도의 그 어처구니없는 수작을 들으며 쫓겨들이고 과연 무슨 생각을 골리겠는지를 궁금하다. 전쟁을 그 무슨 아이들의 동네 축구처럼 착각하며 한판 붙어보자는 식으로 분별없이 도발을 거는 최윤희같은 얼기치기때문에 피뢰침군에서 전쟁공포증이 날로 커지고있다. 최윤희의 이번 망둥은 최담은 피뢰침당의 불안한 심리의 반영이다. 남조선피뢰침들이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편승하여 제일 악질적으로 놀아내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천만 군민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고 멸적의 무아쇠는 격동상태에 있다. 이로 하여 구도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역도는 어찌저지 피뢰침의 사기를 돋우어주고 전쟁광기를 불어넣기 위해 최진방에까지 게바라나기 객기를 부린것이다.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안중에도 없이 동족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전쟁의 불꽃을 들고 미친듯이 날뛰는 이런 역적때문에 북남관계가 갈수록 파국의 수렁속에 빠져들고 조진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협이 날로 깊어가고있는것이다.

제 처지도 모르고 고장난 총을기처럼 계속 소란스럽게 백백대는 최윤희역도에게 다시한번 경고한다. 투구를 썼다고 군사가 되는것이 아니며 전쟁은 허바닥으로 하는것도 아니다. 분별없이 날뛰다가 불벼락을 맞고 재가루가 되지 않으려거든는 가벼운 일을 나불거리지 말라. 지금처럼 때없이 폭언을 해치며 우리 천만군민의 분노를 촉발시키는것은 스스로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짓이다. 피뢰침이 그토록 믿고있는 미국상전도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불소나기를 결코 막아줄수 없다. 그러면 죽어가게 돌아치며 분수없이 너털대지 말고 신중히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북침흥제가 비낀 《국방예산》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으로 북남대결상태를 격화시키면서 새 전쟁의 불침을 터뜨리기 위해 발광하는 남조선피뢰침당의 호전적기조가 날로 격화되고있다. 얼마전 피뢰침당이 연평도사건이후 2015년 《국방예산》의 규모와 내용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이번에도 피뢰침들은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떠들어대며 다음에 《국방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4.9% 더 많은 37조 4560억원으로 확정하였다. 호전광들은 《독자적인 방위력》의 간판밑에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사일세계공격체제인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 새로운 무기 도입과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동시에 무력주권을 세계공격력으로 더욱 완비하여 기어이 새 정권을 도발하려는 중요한 기도의 뚜렷한 발로이다.

이런에 피뢰침전세력은 호전성에 있어서 리명박때만 쫓겨먹고 있다. 지난해엔 하여도 피뢰침들은 《독자적인 방위력》, 《장사정교위협》을 요란히 광고하며 북침전쟁준비상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방예산》은 전체에 비해 4.2%나 더 증가되었다. 그것은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비롯한 선제공격전략실현을 위한것이었다. 피뢰침들은 5년간으로 작성되는 《국방중기계획예산》을 이전에 비해 대폭 늘였다. 지난해 피뢰침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예산》은 241조 5000억원에 달하였다. 그에 대해 피뢰침부대거리들

이런에 피뢰침전세력은 호전성에 있어서 리명박때만 쫓겨먹고 있다. 지난해엔 하여도 피뢰침들은 《독자적인 방위력》, 《장사정교위협》을 요란히 광고하며 북침전쟁준비상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방예산》은 전체에 비해 4.2%나 더 증가되었다. 그것은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비롯한 선제공격전략실현을 위한것이었다. 피뢰침들은 5년간으로 작성되는 《국방중기계획예산》을 이전에 비해 대폭 늘였다. 지난해 피뢰침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예산》은 241조 5000억원에 달하였다. 그에 대해 피뢰침부대거리들

이런에 피뢰침전세력은 호전성에 있어서 리명박때만 쫓겨먹고 있다. 지난해엔 하여도 피뢰침들은 《독자적인 방위력》, 《장사정교위협》을 요란히 광고하며 북침전쟁준비상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방예산》은 전체에 비해 4.2%나 더 증가되었다. 그것은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비롯한 선제공격전략실현을 위한것이었다. 피뢰침들은 5년간으로 작성되는 《국방중기계획예산》을 이전에 비해 대폭 늘였다. 지난해 피뢰침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예산》은 241조 5000억원에 달하였다. 그에 대해 피뢰침부대거리들

이런에 피뢰침전세력은 호전성에 있어서 리명박때만 쫓겨먹고 있다. 지난해엔 하여도 피뢰침들은 《독자적인 방위력》, 《장사정교위협》을 요란히 광고하며 북침전쟁준비상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방예산》은 전체에 비해 4.2%나 더 증가되었다. 그것은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비롯한 선제공격전략실현을 위한것이었다. 피뢰침들은 5년간으로 작성되는 《국방중기계획예산》을 이전에 비해 대폭 늘였다. 지난해 피뢰침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예산》은 241조 5000억원에 달하였다. 그에 대해 피뢰침부대거리들

이런에 피뢰침전세력은 호전성에 있어서 리명박때만 쫓겨먹고 있다. 지난해엔 하여도 피뢰침들은 《독자적인 방위력》, 《장사정교위협》을 요란히 광고하며 북침전쟁준비상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방예산》은 전체에 비해 4.2%나 더 증가되었다. 그것은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비롯한 선제공격전략실현을 위한것이었다. 피뢰침들은 5년간으로 작성되는 《국방중기계획예산》을 이전에 비해 대폭 늘였다. 지난해 피뢰침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예산》은 241조 5000억원에 달하였다. 그에 대해 피뢰침부대거리들

이런에 피뢰침전세력은 호전성에 있어서 리명박때만 쫓겨먹고 있다. 지난해엔 하여도 피뢰침들은 《독자적인 방위력》, 《장사정교위협》을 요란히 광고하며 북침전쟁준비상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방예산》은 전체에 비해 4.2%나 더 증가되었다. 그것은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비롯한 선제공격전략실현을 위한것이었다. 피뢰침들은 5년간으로 작성되는 《국방중기계획예산》을 이전에 비해 대폭 늘였다. 지난해 피뢰침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예산》은 241조 5000억원에 달하였다. 그에 대해 피뢰침부대거리들

이런에 피뢰침전세력은 호전성에 있어서 리명박때만 쫓겨먹고 있다. 지난해엔 하여도 피뢰침들은 《독자적인 방위력》, 《장사정교위협》을 요란히 광고하며 북침전쟁준비상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방예산》은 전체에 비해 4.2%나 더 증가되었다. 그것은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비롯한 선제공격전략실현을 위한것이었다. 피뢰침들은 5년간으로 작성되는 《국방중기계획예산》을 이전에 비해 대폭 늘였다. 지난해 피뢰침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예산》은 241조 5000억원에 달하였다. 그에 대해 피뢰침부대거리들

《유신》독재로 더러운 명줄을 유지해보려는 보수패당에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야말것이다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지금 남조선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의사를 담아 창당되어 합법적인 정당으로 활동하여온 통합진보당이 독재권력의 칼바람에 의해 하루이침에 강제해산당하는 참극이 빚어져 세인을 경악케 하고있다. 지난 19일 피뢰침보수패당은 남조선과 내외 각계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거수기들을 내몰아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을 선포하고 이 당소속 《국회》의원 20명의 의원직을 박탈한데 이어 50일에는 당제헌까지 접수하는 특대형 파쇼폭거를 감행하였다. 민의에 의해 조직된 합법적인 정당을 권력을 휘둘러 백주에 고갈한 피뢰침보수패의 친인공노찰 탄압탄핵은 지금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치솟는 저주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피뢰침당의 강제해산책동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한 극악무도한 정치테러행위, 새 정치, 새 생활과 자주통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의 진보민주개혁세력에 대한 전대미문의 교살탄핵, 동족에 대한 또 하나의 엄청난 정치적도발로 낙인하면서 온 민족과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이름으로 준엄히 단죄규판한다. 통합진보당으로 말하면 남조선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지지해 주는 정당으로서 이 당이 내세운 진보적인 민주주의와 자주, 연방통일을 기본으로 하고있는 강령

이 사회의 절대다수인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대변한것을 범죄로 몰아 합법정당까지 강제해산한것은 남조선이 야말로 최악의 파쇼폭압과 부정의, 매국이 살판치는 민주와 인권의 불모지, 동태대라는것을 뚜렷이 황후해주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야당들과 사회 각계는 이번 사태를 《헌정사적 최악의 오점을 남긴 정치체제》,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방살인》, 《인구육의 독재시대 도래》 등으로 개탄하면서 보수패당들에게 대한 저주와 울분을 터뜨리고있는것이다. 저들의 집권유지를 위해서라면 초보적인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은 고사하고 합법적정당마저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있는 회세의 파쇼폭군 박근혜패당이 당치 않게 그 누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떠들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스롭고 후안무치한 망둥의 극치기 아닐수 없다. 더우기 문제시작이 없었음은 이것은 피뢰침보수패당이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을 우리와 억지로 편질시키면서 비합리한 거세한 항의와 규탄을 모면해 보려고 어리석은 잔꾀를 부리고 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선행단체활동에 의해 조직된 진보당사건과 인민혁명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등 수 많은 모략사건들이 여실히 폭로해주고있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통치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자주, 민주, 통일을국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들과 인사들을 《북의 간첩》으로 몰아 마구 탄압학살하면서 사회에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해온것은 보수집권세력들이 매달려온 상투적인 수법이었다. 《유신》독재자의 괴물 물러받은 현 집권자는 그 전집을 답습하고있을뿐아니라 야만성과 악랄성, 비례제에서 오히려 려대 대제자들을 통가하고 있다. 이번엔 전주곡을 울린 《유신》독재의 파쇼광풍이 배일 다른 정당, 단체를 《총부》세력으로서 몰아 부세의 칼을 들이댈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현 집권패당과 같은 파쇼의 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사회의 자주와 민주, 통일과 인권을 물론 평화와 자유도 없고 이 땅에 대결과 전쟁의 재난방에 가져올것이다. 조선사회민주당은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진보정당들과 함께 합법적인 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한 피뢰침패당의 친인공노찰 파쇼테러 망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온 민족은 시대와 민선에 역행하면서 《유신》독재로 더러운 명줄을 유지해보려는 보수패당에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야말것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정당과 소속,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자주와 민주, 통일의 길에서 단합하며 민심의 요구를 한사코 가로막고 진보민주세력과 연방통일세력합살에 미쳐날뛰는 보수패당의 파쇼적 폭거를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제103(2014)년 12월 23일 평양

이 사회의 절대다수인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대변한것을 범죄로 몰아 합법정당까지 강제해산한것은 남조선이 야말로 최악의 파쇼폭압과 부정의, 매국이 살판치는 민주와 인권의 불모지, 동태대라는것을 뚜렷이 황후해주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야당들과 사회 각계는 이번 사태를 《헌정사적 최악의 오점을 남긴 정치체제》,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방살인》, 《인구육의 독재시대 도래》 등으로 개탄하면서 보수패당들에게 대한 저주와 울분을 터뜨리고있는것이다. 저들의 집권유지를 위해서라면 초보적인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은 고사하고 합법적정당마저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있는 회세의 파쇼폭군 박근혜패당이 당치 않게 그 누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떠들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스롭고 후안무치한 망둥의 극치기 아닐수 없다. 더우기 문제시작이 없었음은 이것은 피뢰침보수패당이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을 우리와 억지로 편질시키면서 비합리한 거세한 항의와 규탄을 모면해 보려고 어리석은 잔꾀를 부리고 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선행단체활동에 의해 조직된 진보당사건과 인민혁명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등 수 많은 모략사건들이 여실히 폭로해주고있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통치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자주, 민주, 통일을국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들과 인사들을 《북의 간첩》으로 몰아 마구 탄압학살하면서 사회에 공포의

23년간 이어온 원군의 길

남포 경영전문학교 교직원, 학생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뜻깊은 기념일을 맞으며 남포경영전문학교를 찾았으니 새로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원로물자》라고 쓴 지함을 안고 여기저기서 모여드는 교원들, 성적이 뛰어난 원로물자들을 정히 들고오는 교원들, 원로물자는 자동차 한대에 싣고도 남을만큼 쌓였다. 《이처럼하는 우리에게 교장 림 혜순동무는 우리 초소로 보낼것이라고 흔쾌히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우리는 교장의 방에서 부피두려운 원군일지를 보게 되었다. 투쟁에 보풀이 일고 색깔은 사뭇달라 100여명의 강사편지가 붙어있는 원군일지, 인민군인들과 전쟁로병들, 영예군인들을 위해 기울인 학교교직원, 학생들의 뜨거운 열속의 정이 글썽하게 하여와 한장한장 번질수록 마다도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 일지였다. 특히 우리를 놀라게 한것은

원군일지가 23년전부터 씌여졌다는 사실이었다. 위대한 명도 자정원일지등이게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군대를 사랑하고 원호하는것은 자기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기쁨과 환희를 안고 학교의 교직원, 학생들이 원군일에 오를것은 23년전이었다. 그때로부터 초소의 군인들을 위하는 이들의 원군의 발걸음은 해마다 줄기차게 이어졌다. 그 기간 23년이나 졸업생들이 교문을 나서고 교직원들의 구성도 많이 변화하였지만 애국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원군일은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교장 림혜순동무를 비롯한 교원들은 원군이자 애국으로 조국보위초소를 지켜선 군인들을 위하는 마음이야말로 승인한 애국심의 발원이라는것을 신입생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거

위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었다. 명절이나 기념일이면 교장 부러가 가정에서 마련한 원로물자를 가지고 선창으로 나오고 교원 운영에, 도서수원 김혜숙 동무를 비롯한 교직원들이 원군의 앞장에 섰다. 학교들에서도 스스로 여러가지 원로물자들을 마련하여 영예군인들과 전쟁로병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는 미풍이 차고번졌다. 학교에서는 부업직을 잘 꾸리고 버섯도 기르고 축산도 하면서 원로물자마련을 위한 물질적 준비를 더 잘 갖추었다. 강판관의 참조를 받고 부업직을 개간하던 일이며 축산기지를 건설하느라 밤낮이 따로없이 뛰여다니던 나날의 이야기는 실로 감동적이었다. 이런 이같은 노력이었어 인민군인들에게 대한 원호사업은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졌고 원군일지의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졌다. 교직원, 학생들은 인민군군인들을 위한 일에서 타산을 앞세운적이 없었고 그 어떤 평가도

바라지 않았다. 하늘처럼 맑고 푸른 어버이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피눈물을 삼키면 비애의 한날에도 이들은 눈물속에 마련한 원로물자들을 또다시 인민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이들의 소행에 감동된 지휘관들과 이들의 성의에 의해 완쾌된 병사들, 친혈육의 정을 나누어온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이 보내온 감사의 편지는 무수한 편지를 헤아린다. 오늘날도 학교의 교직원들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험한 발걸음을 따르는 심정으로 초소의 군인들을 위한 원군일을 즐기게 되어가고있다. 참으로 수십년세월 변함없이 이어가는 이들의 원군일은 최고사령관기를 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단결한 대진군의 속도이며 일관된 변함없는 애국충정의 길인것이다. 특약기자 주창선



어버이장군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 길이 전하며 오늘도 사랑의 풍우유차가 수도의 거리를 달리고있다. 본사기자 림 학 력 역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조선을 수호하고 불패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히세의 령장

필승의 력사만을 새겨오신 천하제일명장

명장의 담력과 배짱은 적과의 대결에서 승리의 담보로 된다.
반세기 가 될 넘은 조미대결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편전전승할수 있는것은 그 어떤 최성벽역에도 드물지 않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무서운 철추를 내리신 탁월한 선군명장을 모시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흔히 사람들은 지략과 전법에 능하고 담력이 큰 용장을 장군이라고 부르는데 김정일동지는 지략과 군사전법이 뛰어나니라 무비의 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필승의 지략과 함께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제국주의강적을 위라파라하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를 지켜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세상은 오늘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1968년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우리 나라 평해에 기어어들어 정탐행위를 하다가 우리 인민군대에 의해 나포되였다. 이 사건이 터지자 세계의 이목은 조선에 집중되였다. 《푸에블로》호는 당시로서는 가장 발전된 기체와 장비를 갖춘 미제의 최신형무장간첩선이었다. 이 간첩선이 우리 공화국의 평해에 침입하였다 나포되자 세계는 저들에게 있어서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일이라고 비명을 지르며 환담을 이리저리 떠돌았다. 미제는 한차례의 현대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침략무력을 조선반도주변에 집결시키면서 우리가 《사파》를 하고 《푸에블로》호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핵무기사용도 서슴지 않을것이라고 횡포하게 위협공갈해나왔다. 실로 파렴치성과 오만성의 극치였다.

세계가 우리를 주시하고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국이 항복서를 내기 전에는 《푸에블로》호 선원들을 절대로 석방하지 않겠다고, 《푸에블로》호는 우리의 전리품이므로 돌려주지 않고 박물관에 전시해놓겠다고 단언하시였다.
사면발방으로 가해지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고서도 초강경대응으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철골같이 지키신 절세위인들의 대노 배짱과 담력은 우리 인민에게 전인불반의 의지와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마침내 미국은 우리 인민앞에 회기를 들고 사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당시 《푸에블로》호사건을 둘러싼 참예한 조미대결전에 대하여 외국의 한 출판물은 이렇게 평했다.
《푸에블로》호사건에서는 도대체 누가 사죄했고 누가 승리하였는가. 골목한것은 미국이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의 조선은 미국과의 군사대결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조미대결에서 미국은 언제나 수처지은 패자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력사에 기록되어있는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놓고보아도 미국의 도발로 벌어진 참예한 조미 군사대결전들은 매년 미국의 굴복과 사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로 결속되였다. 오죽했으면 미군부의 고위인물까지도 《북조선은 전갈과도 같다. 잘못 밟으면 전갈은 독을 쏜다.》라고 비명을 질렀겠는가.

세상은 지금도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이 물러들던 1990년대를 잊지 않고있다.
평전총신후 더욱더 기고만장해진 미제는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면서 우리

공화국에 공격의 화살을 돌리었다. 우리 공화국과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과의 대결이었다.
미제는 1993년에 《해개발의혹자》라는 구실밑에 국제헌자력기구의 일부 불순세력을 발동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였으며 파렴치하게도 시한까지 제시해놓았다.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적공격과 선제타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떠들면서 침략적인 전쟁계획까지 공표연히 내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모험적인 《워트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이 재개되었으며 핵무기를 적재한 신형전투기들과 합선, 각종 핵타격수단들, 20만명의 침략무력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수역에 투입되였다.
세상은 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와 동정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그처럼 건박하고 준엄한 시기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국을 회회게 다물라시였다.
주제82(1993)년 3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전국, 전진, 전군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고 이어 핵무기전과 방위조약에서 우리 나라가 탈퇴한다는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되였다. 이것은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대하여서는 언제나 초강경대응으로 단호히 대응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드센 배짱이 어떤것인가를 다시 한번 온 세계에 알리는 폭탄선언이었다.

사실상 핵무기전과방위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한다는것은 보상의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서는 엄두조차 낼수 없는 대단이었다. 핵무기전과방위조약은 본질상 미국이 핵우산, 핵의 우산을 리용하여 세계무대에서 저들의 《지도적역할》과 영향력을 영위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일종의 국제법상의 제재와 압력공통들이었다. 결국 핵무기전과방위조약에서 탈퇴한

다는것은 미국의 정치외교적압력과 경제봉쇄 지어 무력침공까지도 각오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강인담대한 배짱앞에 세계는 깜짝 놀랐다.
《지구상의 모든 핵폭탄을 다 터쳐도 공화국의 이번 성명보다 위력하지 못했겠다.》, 《조선의 결정은 미형정부를 쇼크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초강경대응조치를 지지하고 격찬하는 세계의 목소리였다.

미국은 울며 겨자먹기로 핵폭동들을 내리우고 조미회담마당에 끌려나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고 미국대통령이 담보서한까지 보내여온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안아온 거대한 사면이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인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불굴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적들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행동을 결을마다 짓부시며 필승의 력사만을 새겨왔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나 우리 공화국을 없애버리기 위해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무력간섭의 명분으로 하여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고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항복서만을 바쳐온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최후발악하며 달려온 미국에 차례질것은 무조건적 정벌과 비참한 운명뿐이다. 조미대결전의 력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이러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회세의 선군명장이신 김정일동지는 그 어느 위인도 지닌 성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돌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김 철 료

위 인 과 담 력

◇위인의 담대한 배짱은 천하를 뒤흔든다. 강권과 불의가 판을 치는 오늘 세상에서 어떻게 되어 크지 않은 조선이 미국에 맞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를수 있는가. 세계의 대결구도가 동서대결로부터 조미대결로 바뀔 때 로부터 많은 정치가들이 의문시한 문제점이였다.

여기에 세기를 이어가며 치밀하게 벌어지는 조미대결전을 지켜보며 외국의 한 인사가 이런 심장의 웨침이 있다.
《조선은 바로 그 어떤 최성벽역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김정일명도자께서 계시어 미국과의 대결에서 편전전승을 이룩하고있다.》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끄는 령도자에게 있어서 담력이야말로 천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민족의 강대성의 원천이며 원자탄보다 더 위대한 최강의 무기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그 어느 위인도 지닌 성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돌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적과의 대결은 신념과 의지, 배짱의 대결이다.
력사에는 적과의 대결에서 투항의 회기를 들어 수치를 당한 실례가 허다하다. 핵공공을 들이대는 미국앞에서 그만 못지 않은 강위력한 무장을 갖추고있던 많은 나라들이 굴복하였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책행동이 어떻게 막을 내렸던가.
도적이 매를 드는 적으로 미제는 그때마다 당장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기고만장하여 달려왔다. 그러나 미제는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담력앞에서는 감히 어찌지 못하였다. 담력과 배짱은 결코 령도의 크거나 인구

수, 군력과 경제력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초강국도 벌벌 떨게 하는 우리 장군님의 담력은 백두의 기상을 닮고 어리신 시절에 벌써 두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역세게 다져진 침룡적기질이며 정의의 위업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 무공무전한 근로인민대중의 힘을 당할자는 세상에 없다는 드물지 않는 믿음에서부터 발현된 누구나 지닐수 없는 위인적기질이다.

◇드센 담력과 배짱을 가지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으며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기를 집강시킨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담력과 기상을 그대로 체현하신 천하제일배짱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다.

지난 3년간 우리 나라에서 일어났고있는 격동적인 사면들을 통하여 세계는 똑똑히 보았다.
그 어떤 최성벽역에도 끄떡하지 않는 철의 의지, 완강한 전개력,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내대고 총을 들이대면 대포를 내대는 대담한 공격정신, 이것이 백두의 정기를 지니신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령도적자질이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백두산천출명장의 담력과 배짱이 있어 우리는 천만대적앞에서 두 두려움을 몰랐고 나라의 자주적존엄과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칠수 있었다.
명장님에는 약졸이 없다. 드물지 않는 배짱과 담력을 천공으로 지니신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사회주의의 위업의 위대한 수호자

21세기에 들어와 제국주의대변자들과 회회자의 자들은 마지도 완화과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것처럼 떠들었다.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반테로전》으로 세계 도처에서 전쟁의 불길기 타고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유일초대대국》으로 자처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전횡을 부리였으며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탄압하며 유린하면서 국제판례와 국제법을 짓밟고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려고 달려왔다. 작은 나라이건 큰 나라이건 미국의 눈치를 보았다. 지어 령장들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바르소리 한마디 제대도 하지 못하였다.

세상은 전쟁이나 평화나, 자주나 예속이나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세계 되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미국의 나자하고 수단을 막고 자주적으로 전가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대

한 해답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사상과 병도의 거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혁명론》은 우리 시대 《위대한 혁명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가장 위력하고 존엄높은 자주의 정치이며 선군정치는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침략행동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례적인 혁명로선, 정치방식이라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자주화된 세계, 그것은 지배와 예속, 간섭과 압력이 없는 세상이 되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세계이다.
선군정치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이나 아니라 정의를 수호하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승리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정치방식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국제무대에서 정의와 평화가 지켜지고 세계사회주의의 위업, 자주화위업이 엄숙한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가고 있다.

나부 등과 키가 큰 풀들이 우거져 있다.
동북부일대의 평원에도 망고로브 등의 나무들이 키높이 자라 푸른 숲을 이루고있다.
남부지대의 강기슭에는 나무

들이 우거져있어 초원의 독특한 경관을 이루고있다. 열대림에는 꼬끼리, 검은성성이 등 열대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있다.
나라의 여러곳에 귀중한 동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아드칼 민족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을

이유어지게 한다.
공고는 자연지리특성에 맞게 립을 펼쳤고있다.
공고는 수많은 목재가공공장을 건설하여 새 생활건설에 필요한 목재수요를 보장하고있으며 수출도 많이 하고있다.
림업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현대화하며 생산한 통나무들을 가공공장으로 제재해 수출하기 위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관심이 돌리고있다. 경제림조성에도 힘을 넣고있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공화국화국사이에 대수급의교과계를 맺은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이유어지게 한다.
공고는 자연지리특성에 맞게 립을 펼쳤고있다.
공고는 수많은 목재가공공장을 건설하여 새 생활건설에 필요한 목재수요를 보장하고있으며 수출도 많이 하고있다.
림업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현대화하며 생산한 통나무들을 가공공장으로 제재해 수출하기 위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관심이 돌리고있다. 경제림조성에도 힘을 넣고있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공화국화국사이에 대수급의교과계를 맺은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이유어지게 한다.
공고는 자연지리특성에 맞게 립을 펼쳤고있다.
공고는 수많은 목재가공공장을 건설하여 새 생활건설에 필요한 목재수요를 보장하고있으며 수출도 많이 하고있다.
림업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현대화하며 생산한 통나무들을 가공공장으로 제재해 수출하기 위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관심이 돌리고있다. 경제림조성에도 힘을 넣고있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공화국화국사이에 대수급의교과계를 맺은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이유어지게 한다.
공고는 자연지리특성에 맞게 립을 펼쳤고있다.
공고는 수많은 목재가공공장을 건설하여 새 생활건설에 필요한 목재수요를 보장하고있으며 수출도 많이 하고있다.
림업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현대화하며 생산한 통나무들을 가공공장으로 제재해 수출하기 위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관심이 돌리고있다. 경제림조성에도 힘을 넣고있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공화국화국사이에 대수급의교과계를 맺은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이유어지게 한다.
공고는 자연지리특성에 맞게 립을 펼쳤고있다.
공고는 수많은 목재가공공장을 건설하여 새 생활건설에 필요한 목재수요를 보장하고있으며 수출도 많이 하고있다.
림업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현대화하며 생산한 통나무들을 가공공장으로 제재해 수출하기 위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관심이 돌리고있다. 경제림조성에도 힘을 넣고있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공화국화국사이에 대수급의교과계를 맺은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이유어지게 한다.
공고는 자연지리특성에 맞게 립을 펼쳤고있다.
공고는 수많은 목재가공공장을 건설하여 새 생활건설에 필요한 목재수요를 보장하고있으며 수출도 많이 하고있다.
림업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현대화하며 생산한 통나무들을 가공공장으로 제재해 수출하기 위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관심이 돌리고있다. 경제림조성에도 힘을 넣고있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공화국화국사이에 대수급의교과계를 맺은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이유어지게 한다.
공고는 자연지리특성에 맞게 립을 펼쳤고있다.
공고는 수많은 목재가공공장을 건설하여 새 생활건설에 필요한 목재수요를 보장하고있으며 수출도 많이 하고있다.
림업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현대화하며 생산한 통나무들을 가공공장으로 제재해 수출하기 위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관심이 돌리고있다. 경제림조성에도 힘을 넣고있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공화국화국사이에 대수급의교과계를 맺은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이유어지게 한다.
공고는 자연지리특성에 맞게 립을 펼쳤고있다.
공고는 수많은 목재가공공장을 건설하여 새 생활건설에 필요한 목재수요를 보장하고있으며 수출도 많이 하고있다.
림업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현대화하며 생산한 통나무들을 가공공장으로 제재해 수출하기 위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관심이 돌리고있다. 경제림조성에도 힘을 넣고있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공화국화국사이에 대수급의교과계를 맺은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조미대결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어 조선 혁명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추대하며 높이 칭송하고있다.
배년사회의당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국의 군사적도발과 침략타격을 결을마다 짓부셔버리시였다. 그 이께서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때 미국의 기를 단호히 꺾어놓으시고 새 전쟁의 발발과 미연에 막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후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조미대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시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정세를 수호할수 있는 민출적인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조선이 당당한 전쟁적력까지 갖추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를 조선에 위협하던 시대는 영영 끝장나게 되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김정일대원수님을 탁월한 사상가로서이며 당과 국가,

군대의 위대한 령도자, 천재적인 지략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강철의 령장이시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총창하게 계승하시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라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나이에따라 전 국회 하원의원은 한 회고소임에서 김일성명도자께서는 선군정치의 길을 끊임없이 걸으시면서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조미대결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어 조선 혁명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추대하며 높이 칭송하고있다.
배년사회의당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국의 군사적도발과 침략타격을 결을마다 짓부셔버리시였다. 그 이께서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때 미국의 기를 단호히 꺾어놓으시고 새 전쟁의 발발과 미연에 막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후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조미대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시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정세를 수호할수 있는 민출적인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조선이 당당한 전쟁적력까지 갖추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를 조선에 위협하던 시대는 영영 끝장나게 되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김정일대원수님을 탁월한 사상가로서이며 당과 국가,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조미대결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어 조선 혁명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추대하며 높이 칭송하고있다.
배년사회의당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국의 군사적도발과 침략타격을 결을마다 짓부셔버리시였다. 그 이께서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때 미국의 기를 단호히 꺾어놓으시고 새 전쟁의 발발과 미연에 막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후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조미대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시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정세를 수호할수 있는 민출적인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조선이 당당한 전쟁적력까지 갖추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를 조선에 위협하던 시대는 영영 끝장나게 되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김정일대원수님을 탁월한 사상가로서이며 당과 국가,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조미대결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어 조선 혁명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추대하며 높이 칭송하고있다.
배년사회의당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국의 군사적도발과 침략타격을 결을마다 짓부셔버리시였다. 그 이께서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때 미국의 기를 단호히 꺾어놓으시고 새 전쟁의 발발과 미연에 막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후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조미대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시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정세를 수호할수 있는 민출적인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조선이 당당한 전쟁적력까지 갖추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를 조선에 위협하던 시대는 영영 끝장나게 되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김정일대원수님을 탁월한 사상가로서이며 당과 국가,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조미대결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어 조선 혁명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추대하며 높이 칭송하고있다.
배년사회의당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국의 군사적도발과 침략타격을 결을마다 짓부셔버리시였다. 그 이께서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때 미국의 기를 단호히 꺾어놓으시고 새 전쟁의 발발과 미연에 막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후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조미대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시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정세를 수호할수 있는 민출적인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조선이 당당한 전쟁적력까지 갖추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를 조선에 위협하던 시대는 영영 끝장나게 되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김정일대원수님을 탁월한 사상가로서이며 당과 국가,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조미대결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어 조선 혁명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추대하며 높이 칭송하고있다.
배년사회의당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국의 군사적도발과 침략타격을 결을마다 짓부셔버리시였다. 그 이께서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때 미국의 기를 단호히 꺾어놓으시고 새 전쟁의 발발과 미연에 막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후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조미대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시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정세를 수호할수 있는 민출적인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조선이 당당한 전쟁적력까지 갖추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를 조선에 위협하던 시대는 영영 끝장나게 되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김정일대원수님을 탁월한 사상가로서이며 당과 국가,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조미대결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어 조선 혁명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추대하며 높이 칭송하고있다.
배년사회의당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국의 군사적도발과 침략타격을 결을마다 짓부셔버리시였다. 그 이께서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때 미국의 기를 단호히 꺾어놓으시고 새 전쟁의 발발과 미연에 막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후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조미대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시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정세를 수호할수 있는 민출적인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조선이 당당한 전쟁적력까지 갖추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를 조선에 위협하던 시대는 영영 끝장나게 되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김정일대원수님을 탁월한 사상가로서이며 당과 국가,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조미대결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어 조선 혁명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추대하며 높이 칭송하고있다.
배년사회의당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국의 군사적도발과 침략타격을 결을마다 짓부셔버리시였다. 그 이께서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때 미국의 기를 단호히 꺾어놓으시고 새 전쟁의 발발과 미연에 막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후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조미대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시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정세를 수호할수 있는 민출적인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조선이 당당한 전쟁적력까지 갖추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를 조선에 위협하던 시대는 영영 끝장나게 되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김정일대원수님을 탁월한 사상가로서이며 당과 국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철의 신념과 의지, 맹렬무쌍한 군사적력들로 반미대결전에서 백승만을 떨치신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발라루시공산당의 한 구역위원회는 《백두산과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백두산의 기상을 한몸에 지니시고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제의 반공화국압살행동을 결을마다 짓부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앞에 영구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철의 신념과 의지, 맹렬무쌍한 군사적력들로 반미대결전에서 백승만을 떨치신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발라루시공산당의 한 구역위원회는 《백두산과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백두산의 기상을 한몸에 지니시고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제의 반공화국압살행동을 결을마다 짓부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앞에 영구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철의 신념과 의지, 맹렬무쌍한 군사적력들로 반미대결전에서 백승만을 떨치신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발라루시공산당의 한 구역위원회는 《백두산과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백두산의 기상을 한몸에 지니시고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제의 반공화국압살행동을 결을마다 짓부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앞에 영구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철의 신념과 의지, 맹렬무쌍한 군사적력들로 반미대결전에서 백승만을 떨치신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발라루시공산당의 한 구역위원회는 《백두산과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백두산의 기상을 한몸에 지니시고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제의 반공화국압살행동을 결을마다 짓부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앞에 영구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철의 신념과 의지, 맹렬무쌍한 군사적력들로 반미대결전에서 백승만을 떨치신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발라루시공산당의 한 구역위원회는 《백두산과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백두산의 기상을 한몸에 지니시고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제의 반공화국압살행동을 결을마다 짓부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앞에 영구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철의 신념과 의지, 맹렬무쌍한 군사적력들로 반미대결전에서 백승만을 떨치신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발라루시공산당의 한 구역위원회는 《백두산과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백두산의 기상을 한몸에 지니시고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제의 반공화국압살행동을 결을마다 짓부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앞에 영구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철의 신념과 의지, 맹렬무쌍한 군사적력들로 반미대결전에서 백승만을 떨치신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발라루시공산당의 한 구역위원회는 《백두산과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백두산의 기상을 한몸에 지니시고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제의 반공화국압살행동을 결을마다 짓부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앞에 영구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철의 신념과 의지, 맹렬무쌍한 군사적력들로 반미대결전에서 백승만을 떨치신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발라루시공산당의 한 구역위원회는 《백두산과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백두산의 기상을 한몸에 지니시고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제의 반공화국압살행동을 결을마다 짓부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앞에 영구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



미국에서 경찰의 살인만행에 항의하는 학생들 군중들의 시위

열대림 나라 - 콩고

들이 우거져있어 초원의 독특한 경관을 이루고있다. 열대림에는 꼬끼리, 검은성성이 등 열대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있다.
나라의 여러곳에 귀중한 동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아드칼 민족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을

미국주의의 《반테로련합》을 조 작 품 으 로 락 인

이만국회의장 알리 라리자니가 열마전 한 외교적상에서 미국주의의 《반테로련합》을 조 작 품 으 로 락 인하였다.
그는 테로그루빠를 소탕한다는 구실밑에 형성된 《반테로련합》은 미국의 장안품으로서 아

이스라엘의 살인만행 규탄

열마전 77개집단이 커뮤니케를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살인만행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지역에서 유대인정착촌확장장행동을 반대하는 평화적시위에 참가한 팔레스타인장부조교위 판리를 무참히 살해한것과 관련하여 커뮤니케는 범죄행위에 대

날날이 드러난 인권유린공모자들의 정체

지금 유럽동맹의 대다수 나라들이 미국의 인권유린행위에 공모한 사실자료들이 폭로되어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전해진대 의하면 영국을 비롯한 21개의 유럽나라들이 미중양정부에 비밀감옥과 심문기지를 제공하고 수감자들의 자백명도통과와 체류를 승인하는 등으로 미국의 인권유린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세계는 신사연하는 유럽나라들의 위선적정체를 다시 한번 똑똑히 새겨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번엔 적라라하게 밝혀진 사실앞에서 국제무대에 나서서 《인권》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서 이 나라들의 파렴치성에 어떤해하고있다.
물론 유럽특유의 정치적위선이 그 세사스러운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양정부의 인권유린행위에 유럽의 지지 않은 나라들이 가담했다는 사실자료들이 밝혀짐으로써 유럽의 기만적인 《인권》타령이 단순하고 어떤 위선이나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서는 명백해졌다.
유럽이 다른 나라들의 국권을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데서 악명을 떨치고있는 미국과 다른

비밀이 지배주의를 추구하고있다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과거 다른 대륙나라들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실현한 행적을 가지고있는 서방진사들이 선군적이라고도 안하무인적으로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늘어내는것을 보아도 그렇고 또 벤벤스것을 《인권》에 대해 떠들어대는것을 보아도 미국과 일맥상통하다.

지금 유럽들은 미중양정부의 비밀감옥설치 등 반인륜범죄활동에 관하여 일부 유럽나라들의 행위가 인권에 대한 관대한 위인이며 국제인권협약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들이 미국의 인권유린범죄에 공모한 책임에서 결대로 벗어날수 없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다.

어느 한 신문은 부위집권시기 미중양정부에 《테로형의자》들을 비밀리에 해외로 이송하는데 유럽의 비행장과 기지들을 리용하였으며 일부 유럽국가들은 그들의 합치활동을 방조하고 자국내에서 미중양정부의 비밀감옥의 운영을 허가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신문이 밝혀내며 유럽의 많은 정부들이 《국가적위안》이라는 구실로 미중양정부의 인권유린범죄에 공모한 사실자료들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하는데 제동을 걸었다.
다른 언론들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미중양정부의 고문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인권문제에서 유럽의 위신을 적라라하게 폭로해준다고 평하였다.
내외의 비난과 압력이 더욱 거세차자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미중양정부의 비밀감옥 운영명 승인하였지 고문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다느니 뭐니 하고 피이한 변명을 하느라 궁급하였는가 하면 미국의 고문행위에 협력한 내용들을 배제할을 요구하였으나 언론들이 그대 로 공개하였다는 불만도 늘어났다.